우리는 용감한 형제~ 누가 우리를 막을 쏘냐~♬

☞35면에서 계속

요. 다현이는 시계를 볼 줄도 모르면서 눈이 자꾸 시계로 갔어요. 째깍째깍, 긴 바늘이 1에서 2로 가고 3으로 가고 잘도 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현이가 들어왔어요. 다현이는 눈을 비비며 진짜 형인지 살펴봤어요.

아빠가 주걱을 들고 밥을 푸려고 했어요.

"저 배고프지 않아요."

"형아, 오늘 아침에도 밥 안 먹었잖아."

아빠는 그제야 걱정이 되는지 이현이의 이마를 짚어봤어요.

"웬일이야? 우리 뚱땡이 큰아들이 어디 아픈가?"

이현이가 화를 버럭 냈어요.

"맨날 뚱땡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들 정말이지…. 에잇."

아빠는 이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대한 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던데…."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저를 좀 그냥 두세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다현이가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왜 아무도 집에 안 오느냐고 엄마가 물었어요. 다현이는 갑자기 엄마한테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가 물었어요.

"어제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어."

입에서 말이 저절로 그렇게 나왔어요. 아빠가 수화기를 빼앗았어요.

"괜찮아. 별일 아냐. 올 필요 없어. 내가 곧 갈게."

삼촌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빠는 안심하고 '창문 잘 닫고 자라' 하고는 집으로 갔어요.

아빠가 나가자 이현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밥에 카레를 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얼굴을 처박고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이현이가 다현이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왜 집에 안 갔냐?"

"그러게 말야. 지금이라도 갈까?"

밖은 깜깜했어요. 무섭긴 하지만 왠지 엄마한테 미안해서 가야할 것만 같았어요. 다현이가 신발을 신는데 이현이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너도 오늘은 여기서 자자."

어쩐지 형의 눈빛이 전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둘은 사이좋게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밖에서 삼촌들이 맥주를 마시다가 먹으라고 오징어를 가져다 줬어요. 몇 개 집어먹었지만 둘 다 입맛이 나지 않아서 옆에 그냥 뒀어요.

"그래도 형아, 이 안 닦고 자니까 되게 좋다. 그치?"

"뭐, 쫌…. 좋긴 하지."

〈삽화=스튜디오 돌〉

"내일도 여기서 잘 거야?"

"글쎄, 우리 땜에 현무삼촌이 거실에서 자는 게 미안하니까 내일은 여기서도 못 자겠지."

"근데 형아, 안 들어온다더니 왜 들어왔어?"

"승준이네 집에 가서 놀다가 걔네 아빠가 와서 나왔거든. 그냥 막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다리가 아파서 PC방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상한 형들이 잔뜩 있었어. 중학생인 것 같은데 담배 피고 막 욕하는 형들 있잖아. 무서워서 그냥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없더라구."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형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조금 섞인 것 같았어요.

"내일은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 뭐. 어쩌면 엄마가 잘못했다고 사과할지도 몰라. 형아, 그러면 우리,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

"맛있는 거, 뭐?"

"글쎄, 갈비 먹으러 가자고 할까?"

"그건 우리만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데로 가자. 우동집이나 초밥집 같은 데로."

"초밥? 그래. 나 요새 초밥 무지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럼 거기로 가자."

둘은 모처럼 뜻이 통했어요. 사이좋게 잠자리에 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둘은 기분 좋은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방안은 이현이의 코고는 소리와 다현이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덥다며 꽉 닫지 않은 창문에 검은 그림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찢어진 방충망이 벌어지니까 그림자가 폴짝 뛰어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이 파랗게 빛났어요. 그 눈빛이 점점 다현이 쪽으로 다가왔어요.

꿈에서 형과 사이좋게 축구를 하던 다현이가 발을 힘차게 뻗었어요. 꿈에서는 골인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벽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깍' 하는 비명과 함께.

다현이는 발에 물컹하게 채인 느낌과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떴어요.

"으악, 귀신이다."

다현이의 눈에는 파란 빛 두 개만 보였어요. 다현이는 손을 마구 휘저었고 이현이도 놀라서 깨었어요. 그 놈은 뒤로 물러났지만 쉭쉭하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다현이가 벌떡 일어나 태권도 자세를 취했어요. 이현이도 일어나 그 놈을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둘은 소리를 지르며 공격을 했지요.

그때 삼촌들이 들어와 불을 켰어요. 그 바람에 후다닥, 그 놈이 뛰쳐나갔어요.

"앗, 도둑고양이잖아. 너희, 창문을 안 닫고 잤구나."

어젯밤에 먹다 남은 오징어를 먹으려고 도둑고양이가 들어왔던 거래요.

이현이가 쫓아나가서 아직 도망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도둑고양이를 발로 뻥 찼어요. 삼촌이 얼른 문을 열어 고양이를 내쫓았어요.

"뭐 저런 미친 고양이가 다 있어?"

이현이는 동생에게 미안했어요. 집에서 잤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말이지요.

아침이 되었어요.

"형아, 삼촌들 자는데 아침은 어떡하지? 집에 갈까?"

이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대로 집에 가면 엄마가 받아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들어왔어요. 자전거에 타라고 할 때까지 이현이는 마지못해 가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서는 두부가 많이 들어간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다현이가 뛰어가서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엄마, 나 많이 보고 싶었지?"

"응,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이현이도 꼭 안아줬어요. 이현이는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한 마디 했어요.

"어이구. 이산가족 상봉이 따로 없네그려."

"아빠는 꼭 분위기를 깬다니까."

"글쎄 말이다. 아빠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지?"

"그래서 아빠 별명이 썰렁맨이지요."

셋이서 한꺼번에 아빠를 공격했어요.

"허허. 어제 저녁에는 서로 원수처럼 굴더니 오늘은 똘똘 뭉쳐 나를 왕따 시키네."

모처럼 집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밥을 먹으며 "밤새 별 일 없었지?" 엄마가 묻자 이현이가 다현이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럼, 우린 이제 다 컸다고요."

큰소리로 대답하고는 다현이가 형을 향해 눈을 찡끗해요.

이현이는 동생이 처음으로 의젓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이현이와 다현이는 한가위 달님을 보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이현이가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슬며시 다현이에게 내밀었어요.

"와, 이거 웬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초콜릿을 받자 다현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또 엉터리 노래를 불렀어요.

이현이와 다현이가 나가신다.
똥개도 고양이도 길을 비켜라.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형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으랴.

평소 같으면 '그게 노래냐?'라고 구박할 텐데 이현이도 오늘은 흥얼거리며 같이 불러요.

"우리는 용감한 형제, 누가 우리를 막을 쏘냐~~"

노랫소리가 동네를 가득 채웠어요.

하늘에 둥실 떠있는 달님도 빙그레 용감한 형제를 보고 미소 짓네요.

박선영 / 동화작가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절집 개 곰순이〉로 당선됐고, 지은 책으로 〈정말 멋져. 누가?〉 〈물도깨비의 눈물〉 〈왜 석가모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공저)〉가 있다.

능인향당 www.nihwa.com
순수원향을 지향하는 고품격 향의 명가

항상 열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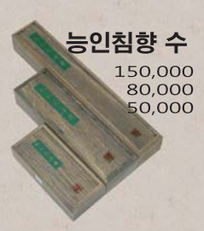
그동안 능인향당의 침향제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능인향당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침향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해주십시오.
늘 그렇듯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준비한 침향에 대한 것을 침향전시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지동 조계사 맞은편 능인향당 침향전시관

침향

프리미엄 침향 제품군



능인침향 수
150,000
80,000
50,000

프리미엄 침향에 인도 마이소르산 최상급 백단을 더하여 향의 품격을 한껏 올린 새로운 향

침향적정
300,000
150,000
80,000

프리미엄 침향에 불가의 오단향인 진자단향을 더한 명상과 기도용 향의 수작

침향
600,000
300,000
150,000
80,000

능인향당 향 법제기술의 총아, 프리미엄 자연산 순수 침향100%로 만든 침향제품의 명작

능인향당에서 준비한 최고의 공양물

침향 108주

침향 합장주

침향왕단주

침향 1000주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6번지 (02)3663-6777 직영매장 : 02)730-6888(조계사맞은편), 인사점(통인가게입구)

爐香觀空法圖 -金弘道